

## 코드킴의 인문논술

## 제시문 (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활력을 임의로 이곳저곳에 소모하려는 정신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의 발현 방식 역시 세상이 진보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표출되는가’를 간략히 설명해 본다면, 보통 ‘도락(道樂)’이라고 하는 자극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락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낚시를 한다든가 당구를 친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총을 메고 사냥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나아가서 어떤 강요 없이 자신의 활력을 소모하고 기뻐하는 쪽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신이 문학도 되고 과학도 되고 또 철학도 되므로, 언뜻 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모두 도락의 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차나 전화 등이 설비되어 있다고 해도 “꼭 오늘은 저쪽까지 걸어서 가고 싶다.”는 식의 도락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일 년에 두세 번은 있습니다. 원해서 육체를 사용하고 피로를 청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산보라는 사치도 요컨대 이 활력 소모의 부류에 속하는 적극적인 생활을 위한 생명 보존 형태의 일부분입니다.

도덕가라면 이 도락 근성의 발전을 꾀함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도덕상의 일일 뿐 사실상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활력을 소비하는 이 궁리 정신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활동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의무적 행동을 하는 인간도 내버려두면 자아본위(自我本位)에 입각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자극에 정신이나 신체 등을 소비하는 경향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 제시문 (나)

프랭크 길브레스는 과학적 관리법에 흥미를 갖고 이를 벽돌쌓기에 적용해보기로 했다. 그는 벽돌공의 동작들에 대해 매우 재미있는 분석과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벽돌공의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길브레스는 벽, 반죽통, 벽돌더미가 위치한 곳에서 양 발이 각각 디터야 할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고,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벽돌더미 쪽으로 한두 발짝 움직이는 동작을 없애도록 했다. 또 그는 반죽통과 벽돌의 가장 알맞은 높이를 연구한 다음, 비계\*를 고안해 그 위에 모든 재료들을 올려놓을 탁자를 둠으로써 벽돌공이 반죽통과 벽돌을 가장 알맞은 위치에 두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비계는 벽의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는데, 비계를 조정하는 일만 전담하는 노동자를 두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벽돌공은 반죽을 퍼낼 때마다 벽돌을 들고 몸을 구부렸다 펴는 일을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벽돌공에게 벽돌을 전달하기 전에 한 노동자가 화차에서 벽돌을 내린 다음 고운 면이 위로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분류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비계 위의 반죽통 가까이에 쌓도록 했다. 이로써 벽돌공은 비계 위에 너저분하게 쌓여 있는 벽돌 더미에서 벽돌을 고르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으며,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빠르게 벽돌을 질 수 있게 되었고 벽돌을 뒤집거나 양 끝을 돌리는 동작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의 낭비가 줄었다.

길브레스는 벽돌공들이 반죽 위에 벽돌을 놓고 접합부의 두께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 흙손의 손잡이 끝으로 벽돌을 몇 차례 두드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이후 그는 반죽의 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함으로써 벽돌을 누르는 손의 압력으로 접합부의 적당한 두께를 손쉽게 유지하는 법을 고안했다.

\* 비계: 건설현장에서 쓰는 가설 발판

## 제시문 (다)

기억에 망각이 특이하게 혼합되는 것은 우리 정신에 있는 선택 작용의 한 예이다. 선택은 그 위에 정신이란 배를 건조할 뼈대가 된다. 그리고 기억을 위해 선택이 쓸모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선택이 없다면,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기간을 회상하려 할 때 그것이 지속된 원래 시간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우리는 결코 사고를 앞으로 진전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회상된 시간들은 원근 단축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데, 이 원근 단축은 그 시간들을 채웠던 수많은 사실을 생략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원근 단축이라는 축약 과정은 이와 같은 결손을 전제로 한다. 먼 옛날의 일을 떠올리기 위해 그 일과 현재의 우리 사이에 놓인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면, 그 조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억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기억이 이루어지는 조건의 하나가 망각하는 것이라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한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완전히 망각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망각은 기억의 질병이 아니라 기억을 건강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망각 과정에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변칙적인 것들이 있다. 어느 날 망각되었던 것이 다음 날에는 기억날 수도 있다. 우리가 상기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지만 무위로 돌아간 것이, 우리가 그 시도를 포기하자마자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천연스레 정신 속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올 수도 있다. 과거의 경험들이 여러 해 동안 철저히 망각된 다음에도, 어떤 대뇌 질환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잠복된 연상 통로가 개방되어 재생되는 일도 가끔 있다. 마치 사진사의 약물이 콜로디온 필름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림을 현상해 내듯이 말이다.

## 제시문 (라)

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적 인지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진은 피실험자들에게 한 번에 하나씩 총 8장의 컬러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고 각각이 무엇에 대한 사진인지 식별하도록 했다. 실험진은 각각의 사진을 초점이 희미한 상태에서 스크린을 통해 피실험자들에게 공개했고 연속적으로 점차 선명하게 보이도록 조작했다. 한편 실험진은 사진을 피실험자들에게 최초로 보여줄 때 사진의 희미한 정도와 공개 시간의 길이를 다양하게 설정했다.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는 상, 중, 하의 3단계로, 공개 시간은 122초, 35초, 13초의 3단계로 구분했다.

이 실험에는 정상적인 (교정)시력을 갖고 있는 총 90명의 대학생들이 피실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10명씩 9개 집단에 배정되었다. 이들 중 첫 번째 3개 집단은 희미한 정도가 '상'인 상태로 사진을 보기 시작했고, 각각 122초, 35초, 13초 동안 총 8장의 사진을 보았다. 또 다른 3개 집단은 희미한 정도가 '중'인 상태에서 사진을 보기 시작했고, 역시 각각 122초, 35초, 13초 동안 총 8장의 사진을 보았다. 마지막 3개 집단은 희미한 정도가 '하'인 상태에서 사진을 보기 시작했고, 각각 122초, 35초, 13초 동안 총 8장의 사진을 보았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의 차이, 그리고 공개 시간의 차이에 상관 없이 미리 정해 놓은 수준까지 선명도가 높아지면 사진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프로젝터를 조작했다. 사진이 꺼질 때 각 집단의 피실험자들은 무엇에 대한 사진인지 미리 준비된 별도의 용지에 바로 기록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 (단위: %)

공개 시간(초)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			평균
	상	중	하	
122	25.3	50.7	72.9	49.6
35	25.2	44.4	63.8	44.5
13	19.4	39.1	42.7	33.7
평균	23.3	44.7	59.8	-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신 활동에 대한 이해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나)의 프랭크 길브레스는 벽돌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도 적용하여 채용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결합해서 어떻게 채용과정을 설계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정해진 원칙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뿐이다. (1,000자 안팎, 50점)

논제 분석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신 활동에 대한 이해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1.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에 대하여 비교
2. (다)의 정신 활동에 대한 이해방식 요약
3. 비판적 분석 => 양면적 평가 논제

<문제 2> 제시문 (나)의 프랭크 길브레스는 벽돌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도 적용하여 채용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결합해서 어떻게 채용과정을 설계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정해진 원칙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뿐이다. (1,000자 안팎, 50점)

## 코드김의 인문논술

1. (나)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정리
2. (라)의 실험 정리
3. 문제 상황(경쟁률이 매우 높은/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 판별) 정리
4. (나), (라)를 활용한 채용 방식 설계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고려) - 문제 해결 방법

### 제시문 독해 - 논제의 핵심어인 ‘낭비’에 대하여 독해

(가) - 도락 (행위의 범주를 사용한 정리독해)

주체 - 사람

양상 - 활력과 정신의 낭비

배경 - 자아본위에 입각

결과 - 기쁨, 문학, 과학, 철학

제시문 (가)를 정리독해 하자면 논제의 키워드인 '낭비'를 중심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시문을 한번 훑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낭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적습니다. 오히려 '도락'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억지로 '낭비'를 찾아내어 정리하기보다는, '도락'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정리하고, 이후에 '낭비'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도락을 중심으로 정리독해를 한다면, 행위의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락의 주체는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제시문의 초입에 '사람들'이라고 언급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하다면, 주체는 그저 '사람' 정도로 정리하면 적절합니다.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도락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행위를 하는지부터 알아본 다음에, 그 행위의 배경을 정리합니다. 이런 방법이 우리가 내용을 받아들이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제시문에서 전반적으로 도락은 다음과 같이 발현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활력을 임의로 이곳저곳에 소모하려는 정신 경향”  
“원해서 육체를 사용하고 피로를 청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극에 정신이나 신체 등을 소비하는 경향”

이를 통해서 본다면 '도락'의 '양상을 정신이나 활력을 소비(낭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활력을 소모하고 기뻐하는 쪽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신이 문학도 되고 과학도 되고 또 철학도 되므로,”

즉, 결과는 '기쁨, 문학, 과학, 철학'이지만, 이를 묶어서 '긍정적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걸 '문화'나, '문명의 기쁨'과 같은 말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나아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제시문의 내용인 '기쁨, 문학, 과학, 철학'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배경 항목에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왜 도락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이에 대한 답변은 찾기 약간 어렵습니다만, 제시문 내에 존재하기는 합니다.

“인간도 내버려두면 자아본위(自我本位)에 입각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자극에 정신이나 신체 등을 소비하는 경향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내버려두면 자아본위(뭔지는 잘 모릅니다만)에 입각하여 행위하고, 낭비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 말을 하니, 도락의 이유를 '자아본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시문에서 도락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락이라는 것을 촉진시키는 요소에 대해서도 딱히 이야기가 없고, 도락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소비하는 경향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에 대한 정리 독해를 마치기 전에, 이 글에서 '낭비'라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비교에 들어갔을 때에 확인해도 좋지만, 제시문의 분석 단계에서 확인하고 문제 풀이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 편할 것입니다.

이 제시문은 '도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도락이라는 것의 양상을 '활력과 정신의 낭비'라고 정리했습니다. 즉, 도락이 곧 낭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도락이라는 이름의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쯤에서 제시문 (가)의 정리독해를 마쳐도 될 것입니다.

(나) - 과학적 관리법(행위의 범주를 사용한 정리독해)

주체 - 프랭크 길브레스와 벽돌공들

배경 -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흥미를 가져서

양상 - 벽돌공의 위치 지정, 비계 설치, 비계 전담 노동자 배치(분업), 벽돌 분류 배치, 반죽의 농도 조절

결과 - 시간의 낭비 감소, 몸을 구부렸다 펴는 일을 감소 -> 효율 향상

제시문 (나)는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제시문을 과학적 관리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닌, 비교 기준인 '낭비'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시문은 '낭비'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일단은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제시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학적 관리법은 정리독해의 범주 중에서 행위에 가장 어울립니다. 사건으로 해도 됩니다. 이론만 아니면 많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주체는 '프랭크 길브레스'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는 '벽돌공들'이니, 해당 내용도 함께 주체에 포함시켜줍시다.

제시문에서는 과학적 관리법의 도입 배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길브레스는 과학적 관리법에 흥미를 갖고 이를 벽돌쌓기에 적용해보기로 했다."

'흥미 때문에'라고 말을 했지만, 뭔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다른 내용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과학적 관리법의 양상은 여러가지로 등장합니다.

"길브레스는 벽, 반죽통, 벽돌더미가 위치한 곳에서 양 발이 각각 디벼야 할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고,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벽돌더미 쪽으로 한두 발짝 움직이는 동작을 없애도록 했다. 또 그는 반죽통과 벽돌의 가장 알맞은 높이를 연구한 다음, 비계\*를 고안해 그 위에 모든 재료들을 올려놓을 탁자를 둠으로써 벽돌공이 반죽통과 벽돌을 가장 알맞은 위치에 두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비계는 벽의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는데, 비계를 조정하는 일만 전담하는 노동자를 두었다."

"벽돌공에게 벽돌을 전달하기 전에 한 노동자가 화차에서 벽돌을 내린 다음 고운 면이 위로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분류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비계 위의 반죽통 가까이에 쌓도록 했다."

"이후 그는 반죽의 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함으로써 벽돌을 누르는 손의 압력으로 접합부의 적당한 두께를 손쉽게 유지하는 법을 고안했다."

이것들을 각각 정리해봅시다. 먼저, 길브레스는 벽돌공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움직이는 동작을 없앴습니다. 또한, 알맞은 높이를 연구하여 비계와 탁자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죽의 농도를 조절하기도 했죠. 이를 전부 일반화하여 "측량, 계량을 도입했다."라고 바꾸어 말해도 되지만, 그게 힘들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런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측정해서" 가능했음은 아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계를 조정하는 일만 전담하는 노동자를 두거나, 벽돌을 분류하는 노동자를 뒀다는 것을 통해서 "분업을 도입했다."라고 바꾸어 말해도 됩니다. 분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도 좋지만, '따로 사람을 두었다.' 정도의 정보는 뽑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반화/추상화를 통한 내용 도출은 힘들 수도 있으니, 양상 항목은 단순하게 위 내용을 그냥 정리해도 좋습니다. '벽돌공의 위치 지정, 비계 설치, 비계 전담 노동자 배치(분업), 벽돌 분류 배치, 반죽의 농도 조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의 결과는 제시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벽돌공은 반죽을 퍼낼 때마다 벽돌을 들고 몸을 구부렸다 펴는 일을 줄이게 되었다"  
"벽돌을 뒤집거나 양 끝을 돌리는 동작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의 낭비가 줄었다."

시간의 낭비가 줄었다거나, 몸을 구부렸다 펴는 일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첫번째 문단의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벽돌공의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즉, 시간의 낭비가 줄어들어 작업 속도를 높였고, 몸을 구부렸다 펴는 일이나 벽돌을 뒤집는 일들을 없애서 피로감도 줄었다고 말한다면 깔끔하게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과학적 관리법을 촉진시킨다거나, 방해할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시문을 사용하여 풀어야 할 문제에서는 '낭비'를 중점으로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은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낭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고, 알기 힘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제시문만 보는 것보다는 다른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찾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 - 망각이라는 정신 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

주체 - 인간

배경 - 효율적 기억을 위해

양상 - 망각은 원근 단축으로 이루어짐, 기억을 완전히 혹은 일시적으로 잊음

결과 - 효율적인 기억이 가능해짐

영향 요소 - 망각의 변칙성

(다)를 읽을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문항의 발문에서 ‘정신 활동’ 그 자체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시문에서 ‘망각’이라는 정신 활동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독해의 행위 범주를 사용하여 정리해본다면 위와 같이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이해방식에 따르면 망각이라는 정신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변칙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요소들도 전부 평가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정리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번 문항 풀이

## 코드킴의 인문논술

	가	나
공통점	낭비에 대해 논함	
주장	긍정	-
근거	도락	-
낭비의 원인	자아분위	
낭비의 결과	기쁨, 과학, 철학, 문학(긍정)	

제시문 (가)에서의 도락은 인간의 본성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니 낭비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 판단을 내린다는 주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독해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표를 작성한다면 위와 같을 겁니다. 제시문 (가)는 '도락'이라는 낭비 그 자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에 대한 속성들을 찾아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시문 (나)는 낭비가 아닌, 낭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에 관한 속성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비교 방법론의 '반대 추론'을 활용해보시다.

반대 추론을 사용하여 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다만, 확정적이진 않으니 “?”를 붙입니다.

	가	나
공통점	낭비에 대해 논함	
주장	긍정	부정(?)
근거	도락	과학적 관리법
낭비의 원인	자아본위(자연적)	인위적(?)
낭비의 결과	기쁨, 과학, 철학, 문학(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위처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표가 완성됩니다. 비교 방법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대 추론은 한 제시문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 다른 제시문에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정합성 판단을 거쳐보도록 합시다.

반대 추론에 따르면 제시문 (나)는 낭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시문의 내용이 낭비를 정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라면 왜 부정적인지 이유를 찾아내야 하는 법이니까요.

만일, 부정적이라면 그에 대한 근거는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해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과학적 관리법은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낭비가 만일 긍정적인 것이라면 굳이 제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다른 요소들을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 코트김의 인문논술

먼저 낭비의 원인을 찾아봅시다. 제시문 (가)에서 낭비의 원인은 자아본위입니다. 제시문을 정리할 때 도출해낸 것이지요.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자아본위 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능에 따라 행위한다면 '자연적'이라는 말로 우리가 행동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도출된 '자연적'이라는 속성을 반대로 뒤집어본다면 '인위적' 내지는 '인공적'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 (나)를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시문 (나)에서 낭비를 제거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기존의 방법들이 낭비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던 프랭크 길브레스가 낭비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기 전의 상태를 '비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해봅시다. 낭비를 만들어내는 '비과학적 관리법'은 벽돌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비과학적 관리법은 벽돌을 쌓으려는 벽돌공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인위적', '인공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론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벽돌공'들이 벽돌을 쌓으면서 자연적으로 행동했기에 낭비가 생긴 것 아닌가?

벽돌을 쌓는다는 것의 행위에는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는 도락심의 발현 그 자체가 낭비입니다. 낭비의 이유가 그저 낭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목적지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벽돌을 쌓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벽돌 쌓기'라는 다분한 목적이 있고, 그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이라고 보기엔 어려우며, 인공적, 인위적이 옳은 말이 됩니다.

이제 낭비의 결과를 생각해봅시다. (가)에서 낭비의 결과는 기쁨의 감정과 문학, 철학, 과학과 같은 긍정적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나)에서는 그 반대인 부정적 요소가 존재함을 반대 추론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정적 요소인지는 제시문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시문 (나)의 프랭크 길브레스가 만일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봅시다.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서, 즉, 과학적 관리법의 적용 이후에 드러난 변화로는 “시간의 낭비가 줄었다.”, “벽돌을 뒤집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허리를 굽혔다 펼 필요가 없게 되었다.” 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과학적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낭비되었다.”, “벽돌을 골라내고 이리저리 뒤집어봐야 했다.”, “허리를 계속 굽혔다 펴야 했다.” 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벽돌 쌓기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즉, 비효율성이 초래됩니다. (나)에서의 낭비의 결과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같은, ‘일에서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가	나
공통점	낭비에 대해 논함	
주장	긍정	부정(?)
근거	도락	과학적 관리법
낭비의 원인	자아분위(자연적)	인위적
낭비의 결과	기쁨, 과학, 철학, 문학(긍정적 결과)	시간의 낭비, 비효율성(부정적 결과)

반대 추론으로 찾아낸 내용들의 대부분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낭비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봅시다. 낭비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니, 분명 낭비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부정(?)” 에서 (?)를 떼주도록 합시다.

	가	나
공통점	낭비에 대해 논함	
주장	긍정	부정
근거	도락	과학적 관리법
낭비의 원인	자아분위(자연적)	인위적
낭비의 결과	기쁨, 과학, 철학, 문학(긍정적 결과)	시간의 낭비, 비효율성(부정적 결과)

여기에서 비교를 마치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를 더 찾아낼 것입니다.

제시문 (가)를 본다면, 도락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제시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나)에 그대로 적용해봅시다. (나)에서는 낭비를 “어쩔 도리가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어쩔 도리가 있는” 것이라면, 낭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시문을 살펴보니 제시문 전반에 걸쳐 낭비를 제거하는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비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지

요. 즉, 제시문 (나)는 낭비가 제거될 가능성이 있으니(어쩔 도리가 있으니), 제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반대로 (가)에 적용시키면 낭비는 제거가 불가능한 것임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포함시켜 표를 다시 그려봅시다.

	가	나
공통점	낭비에 대해 논함	
주장	긍정	부정
근거	도락	과학적 관리법
낭비의 원인	자아분위(자연적)	인위적
낭비의 결과	기쁨, 과학, 철학, 문학(긍정적 결과)	시간의 낭비, 비효율성(부정적 결과)
낭비의 제거 가능성	불가능	가능

이처럼, 멋진 비교 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논제에서 요구하는 ‘낭비에 대해 (가)와 (나)의 비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의 정신 활동에 대한 이해방식을 요약하고, 그것을 (가)와 (나)를 활용해 평가한다면 1번 문항이 끝이 납니다.

## 코드킴의 인문논술

먼저,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정신 활동은 ‘망각’입니다. (다)는 이러한 망각이 더 효율적인 기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며, 원근 단축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설명합니다. 원근 단축은 기억한 내용의 축약을 통해 과거의 일을 회상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이런 망각의 과정에는 설명되지 않는 변칙적인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망각된 기억이 다시 재생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둘 다 가능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기억을 잊어버리는 ‘망각’이라는 정신 활동이 우리의 기억을 지운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는 것도 낭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낭비를 기억의 효율성을 위해 제거해버린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은 (가)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낭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당 낭비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은 망각에서의 변칙적인 것들입니다. 기억의 효율을 위해 망각한 기억이 다시 재생한다면 이는 분명 과거의 일을 회상함에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할,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도 (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낭비의 원인과 유사합니다.

한편,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다)를 평가하자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둘 다 가능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다)의 원근 단축이라는 방식으로 기억의 축약이 회상과 기억의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기억이 가능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낭비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얻으려는 (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은 역시 망각의 변칙적인 것입니다. 망각된 기억이 다시 재생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기억을 회상함에 있어서 낭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큼니다. 이는 기억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의도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지로 부정적인 평가 대상이 됩니다. '낭비'는 과학적 관리법과 같은 의도적 행위로 인해 제거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번 문항 풀이

2번 문항은 문제 상황 해결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무슨 문제 상황? 이라고 생각하실 법 합니다. 발문을 다시 살펴봅시다.

<문제 2>제시문 (나)의 프랭크 길브레스는 벽돌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도 적용하여 채용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결합해서 어떻게 채용과정을 설계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정해진 원칙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뿐이다. (1,000자 안팎, 50점)

채용 과정을 설계하는데 두 가지 문제와 두 가지 해결 조건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것. 두번째 문제는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와 (라)를 결합한다는 첫번째 조건과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친다는 두번째 조건이 존재합니다.

문제 해결 논제의 풀이법의 첫번째는 명확하지 않은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는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해결 방법의 조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 중 (나)의 과학적 관리법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발문에 존재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구상하라는 것입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지원자의 수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류 심사에서 검토할 서류의 수와 면접 심사에서 면접해야 할 지원자의 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에 (나)의 낭비의 결과처럼 시간이나 금전적인 낭비.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업무 수행 능력이 높지 않은 지원자를 뽑았을 때에도 낭비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문제 상황을 정리했으니, 해결 방법을 생각할 차례입니다. 허나, 해결 방법을 (나)와 (라)를 결합해 도출해야 하기에 이 두 제시문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시문 (나)의 과학적 관리법의 양상을 독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벽돌공의 위치 지정, 비계 설치, 비계 전담 노동자 배치(분업), 벽돌 분류 배치, 반죽의 농도 조절”

이런 양상들을 일반화 시킨다면 벽돌공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반죽의 농도를 조절하려면 거리를 측정하거나, 농도를 측정하는 “계량”의 방법이 필수적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따로 노동자를 둔 것은 분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비계를 설치하는 것은 적당한 도구의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과학적 관리법이 지닌 양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계량, 올바른 도구 사용, 분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제시문 (라)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라)는 특정한 실험에 대한 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잡아내보자면 공개 시간이 길수록, 또 희미한 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인지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면 공개 시간에 있어서 122초라는 시간과 35초라는 시간은 90초가 차이가 나지만 인지된 비율의 평균의 차이는 5%p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림의 희미한 정도가 낮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림의 선명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나)와 (라)를 결합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적용시켜봅시다. (나)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낭비의 제거입니다. (라)의 표에 존재하는 122초와 35초라는 시간의 차이는 큼니다만, 정확히 인지되는 비율은 그 차이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즉, 효율적인 시간을 정하자면 35초인 것입니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시에 하나의 서류 검토 혹은 한 번의 면접 당 너무 오랜 시간이 아닌, 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나)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며, 계량을 통해 여러 것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들이 제출할 서류의 형식을 만들되, 해당 형식이 지원자의 수준을 잘 드러내게끔 만드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또한, 서류의 내용들을 계량화시켜 각 요소들을 점수로 환산, 수치화 시킨다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라)의 선명도에 대한 내용을 결합한 것이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질문들이 지원자들의 수준을 명확하게 드러내줄 수 있어야 하며, 대답에 따라 점수를 측정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분업화를 서류 심사에 적용시키면 각 항목마다 전용 심사위원을 두어 서류 심사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검토한다고 해서 판별할 확률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니 적절한 시간동안 심사해야 합니다. 이는 면접 심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업을 사용하기엔 불가능할 것입니다만, 면접 심사는 시간과 가장 큰 연관성을 지닙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면접하는 것이 아닌, 적당한 시간 내에 지원자가 답변한 내용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설계 방식을 사용한다면 효율적으로 금전적/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여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가), (나)는 공통적으로 낭비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낭비에 대한 관점은 (가)와 (나)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가)에서 낭비는 도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도락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정신과 활력을 소모하는 경향이다. 산책이나 낚시와 같은 행위가 도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도락은 자아본위에 의해 발생하며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런 낭비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낭비를 통해 우리는 기쁨을 얻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과학, 철학, 문학과 같은 문명을 이룩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에서는 낭비를 부정적으로 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하고 있다. 프랭크 길브레스는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하거나, 따로 비계를 움직이는 인원을 두거나, 반죽의 농도를 조절하는 등 일에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낭비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가)와 달리 인위적 행위들로 인해 발생하며,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다. 낭비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시간적인 낭비와 일에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신 활동은 망각이며, 이를 원근 단축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는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에서 각각 양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가)는 (다)의 망각에 대한 이해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효율적인 기억을 위해서 기억을 잊는 것은 기억에 있어서의 낭비를 줄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기억의 낭비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망각은 그러한 여지조차 제거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망각한 기억이 재생되는 것은 다른 기억의 회상에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하는 낭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억의 재생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망각 과정이 비의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나)는 (다)의 망각에 대한 이해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효율적인 기억을 위해서 기존의 기억을 제거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법에서 낭비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결과를 얻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망각한 기억이 재생되는 것은 다른 기억의 회상에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한다. 또한 이런 망각 과정이 의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1197자)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채용 과정에서는 많은 지원자를 판별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업무 수행 능력이 높지 않은 지원자가 채용된다면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낭비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시문 (나)의 과학적 관리법과 (라)의 실험 결과를 결합하면, 낭비를 줄이면서도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를 판별하는 채용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나)에서는 과학적 관리법의 수행을 위해 반죽의 농도를 조절하거나, 벽돌공이 있어야 할 위치를 정할 때 측정과 계량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음을 알 수 있다. 비계를 설치한 것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한 것이며, 이 비계를 옮기는 사람을 따로 둔 것은 분업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피실험자들은 사진의 공개 시간이 길수록, 선명한 정도가 높을수록 사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시간이 122초인 경우와 35초인 경우, 공개 시간의 차이는 90초로 큰 편이지만 그에 비해서 사진을 정확히 인지한 사람들의 비율은 평균 4%p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내용을 결합하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제시문 (나)와 같이 서류심사에서 지원자들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준을 드러내줄 수 있는 서류 형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 지원자들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형식일수록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하기 수월할 것이다. 또한, 각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수치화 한다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평가할 때에는 각 항목마다 심사위원을 배치하고, 너무 긴 시간이 아닌 적당한 시간 동안 서류를 검토하게 한다면 효율적인 서류심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시행하되, 면접에서 지원자들의 능력을 선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질문들을 설계하고, 지원자들의 답변을 객관적인 수치를 사용해 측정한다면 효과적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너무 오랜 시간을 주어 면접하는 것 보다는 적당한 시간 내에 지원자들의 답변을 듣는다면 시간적 낭비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1105자)